

해외서 더 뜨거운 '글로벌 아이돌' 갓세븐

지난해 세계 17개 도시서 21회 공연을 6월 영·미·호주 등 최대 규모 투어 7월엔 도쿄·고베·후쿠오카 무대 올라

7인조 아이돌 그룹 갓세븐이 해외에서 '활활' 날고 있다.

지난해 세계 17개 도시에서 21회 공연을 펼치며 '글로벌 대세 아이돌'로 자리매김한 갓세븐(JB·마크·잭슨·진영·영재·뽀뽀·유겸)이 올해는 활동 보폭을 넓혀 역대 최고 규모로 새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이들은 6월15·16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갓세븐 2019 월드투어 킵 스피닝'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의 화려한 포문을 연다. 최근 1차로 개최지를 알린 곳은 아시아, 북남미, 유럽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영국과 미국 2개 도시, 호주도 추가됐다. 현재 다른 나라와 추가 콘서트 일정을 논의 중이라 향후 규모와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월드투어에 시선이 쏠리는



'글로벌 대세 아이돌'로 자리매김한 갓세븐의 JB, 마크, 잭슨, 유겸, 뽀뽀, 영재, 진영.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유는 폴 매카트니, 콜드플레이, 마룬 파이크, 레이디 가가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담당한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과 협업해 북남미와 호주, 유럽 공연 무대를 꾸미기 때문이다.

뽀뽀 진영은 "이전 투어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며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했다.

이번 월드투어와 별개로 갓세븐은 7월 일

본에서 '재팬 투어 2019'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펼친다. 7월30·31일 도쿄 마쿠하리 멧세 이벤트를 시작으로 8월3·4일 고베 월드기념홀, 6일 나고야 국제회의장 센추리홀, 17·18일 후쿠오카 선파레스 호텔&홀에서 무대를 펼친다.

앞서 1월30일 일본에서 발표한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 원트 렛 유고'로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와 위클리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만큼 현지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덕분에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미국 빌보드 어워즈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도 올랐고, 3월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가 내한해 갓세븐과 트위터블루룸 라이브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해외의 인기가 높을수록 이들의 각오도 더 비장하다. 해외에서 이들의 입지나 인기 등과 비교해 국내에서는 "인기가 약하다"는 일부 평가가 있어서다. 이 역시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활동 보폭을 넓혀 인기의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리더 JB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올라가면 성취감이 큰 것처럼 고민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기 보다는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성장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던 현실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annjoy@donga.com

변신의 아이콘 신혜선 이번엔 '어른 멜로'

KBS2 '단, 하나...' 애절한 사랑 연기 발레리나 역 맡아 안무 연습 구슬땀



신혜선

연기자 신혜선의 연기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출연작마다 중복되지 않은 장르 선택이나 그 속에서 그려지는 다양한 캐릭터 등으로 연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신혜선은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을 통해 또 한 번 존재감을 뽐낼 기회를 잡았다. 신혜선이라는 이름 석자를 제대로 알린 KBS 2T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애절한 가족애를 선보이고, 지난해 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를 통해서도 명망하고 쾌활한 로맨틱 코미디 연기에 도전했다. 이번 신작에서는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와 함께 인간이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험난한 모습까지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팔색조 캐릭터 연기에 도전 중인 그는 21일 오후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캐릭터의 감정 전개에 마음을 빼앗겨 이 드라마

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매료된 캐릭터는 최고의 발레리나가 불의의 사고로 꿈을 접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사랑도 믿지 않는 인물이다. 이후 천사(김명수)와 해외발레단 최연소 예술 감독(이동건)을 만나고 그 사이에서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

신혜선은 연기적 변신뿐만 아니라 발레에 도전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현대 무용을 전공한 최수진 안무 감독의 지도 아래 기초부터 배우며 실력을 쌓고 있다. 그는 "기본기가 없으니 실력이 일취월장하지 않았고, 감독님 눈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죄송스러웠다"며 "하지만 지금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훈풍 부는 녹두꽃 vs 역풍 만난 이몽

동학혁명 vs 독립운동 주말 경쟁 녹두꽃, 섬세한 연출·스토리 호평 이몽, 극적 긴장감 없는 대사 지적

한 시대의 역사적 아픔을 담아내며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SBS '녹두꽃'과 MBC '이몽'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엇갈린다. 봉건과 식민 침탈에 맞서는 민초들의 저항을 담은 의미가 깊다는 데에는 이견이 나오지 않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식에 시청자는 호불호를 가키 드러낸다.

'녹두꽃'과 '이몽'은 각각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그리고 있다. '녹두꽃'은 지난달 26일, '이몽'은 이달 4일부터 전파를 타고 있다. 공교롭게도 주말 밤 시간대에 각기 편성돼 자연스럽게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방영 초반인 현재까지는 '녹두꽃'이 승기를 잡고 있다.

이야기를 유연하게 담으려는 '녹두꽃'의 전략이 통한 덕분이다. '녹두꽃'은 백이강·백이현이란 허구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 때문에 기록에 얽매이지 않은 신선한 이야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동시에 '역사가 곧 스포일러'라는 사극의 공식도 됐다. 실제 사건인 황토현 및 황룡강 전투 등을 웅장하고도 섬세하게 재현한 연출력으로 극찬을 받았다. 빠른 사건 전개, 사투리의 '말맛'을 살린 대사가 돋보인다. 호평도 이어진다.

반면 약산 김원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몽'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나뉜다. 1919년 의열단, 1938년 조선의용대장 등 항일투쟁에 나선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는 초반 그에 대한 논란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련되지 못한 만듦새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전형적인 '영웅 드라마'를 답습하는 구조, 극적 긴장감을 주지 못하는 대사들이 요인으로 지목됐다. 시청자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역사적 사실에 집중해 극적 재미는 반감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에 두 드라마의 시청률 성적도 조금씩 갈린다. '녹두꽃'은 7~8%대(이하 닐슨코리아)를 꾸준히 기록 중이다. '이몽'은 5%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가수 싸이 9집 앨범 들고 7월 컴백



싸이

가수 싸이가 7월 컴백한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21일 "7월 초 정규 9집으로 컴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앨범은 2017년 5월 발표한 8집 '4X 2=8' 이후 약 2년 만이다. 소속사는 "새 앨범의 첫 무대는 6월11일 입장권 판매를 시작하는 '2019 싸이 흠뻑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싸이도 SNS를 통해 "9집 이름을 추천 받는다"고 앨범명을 공모하며 팬들에 컴백 소식을 알렸다.

사회복무요원 탐 7월 8일 소집해제



탐

그림 박범 탐(최수현·32)이 7월8일 소집 해제된다. 탐은 당초 8월 초 소집해제 예정이었지만 작년 시행된 병역의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기간이 단축됐다. 탐은 2017년 2월 의무경찰에 합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했다.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돼 현재는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대체 복무 중이다.

배우 양모씨 국과수 감정서 마약 음성반응

지난달 마약 의혹을 받은 단역배우 양모 씨가 22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 씨의 모발·소변 정밀검정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던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양 씨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한우 가마솥 진국

끈지암 허름 소머리국밥

유사브랜드 주의 **NAVER** 끈지암 허름 소머리국밥

한우소머리국밥 7,000원

도가니탕 10,000원

한우소머리수육 20,000원

곰탕 6,000원

육개장 7,000원

곰창전골 20,000원

특보 장사가 안되시면 간판만 바꿔 대박나시고 성공하세요

업종전환 250만원 으로 OPEN

본사에서 선투자 하겠습니다
창사 20주년 / 350호점 오픈 기념 혜택
간판, 섀팅, 홍보물, 포스, SNS, 블로그홍보 지원

가맹점 모집 1588-3892

성공사례(마진율이 높음)
시,군,면,상업지역, 도로변 식당, 골프장, 공업단지, 공원, 주택가 등에서 소머리국밥으로 변경하여 성공중에 있습니다

5월 오픈예정점
하남미사점, 전주점, 천안백석점, 이천점, 용현점, 신장점, 논산 연무점, 파주 문발점

초보자도 쉽게 창업/20여가지 메뉴중 선택
갈비탕, 장터국밥, 설렁탕, 떡볶이고기, 순대국, 내장탕, 감자탕, 소곱창전골, 소꼬리찜, 수육무침, 소갈비살, 마늘보쌈, 김치찌개, 우삼겹...

350 호점 OPEN